

사랑해! 아가야 ①

백 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시간을 보고 아가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백화점내의 수유실 — 실을 찾았다. 저쪽에서 초보인 듯 해 보이는 엄마가 아기에 젖을 주고 있다.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이고 성스러워 보이기 조차한다.

“나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가에게 젖을 먹였는데…”

작년 여름 30번째 생일을 막 지내고 난 8월26일이 첫 아이 출산 예정일이였다. 예정일을 1주일이나 넘기고 나서 병원에 찾아가니, 느닷없이 골반이 작아 수술을 하는게 좋겠다며 수술을 권했고, 수술 직전엔 알려지가 있으니 무통 분만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나 같은 겁쟁이가 어떻게 하지?”

어디 힘 안 들이고 애엄마된 사람 있겠냐 싶지만 정말 그 때의 고통은 너무나도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 너무 아팠지만 그 고통에 대해 이제 체념해 버리자 할 즈음 젖몸살이 시작되었는데 이 또한 너무 참기 힘들어 울다 지쳐 눈물이 다 마를 지경이었다.

‘아 이런 고통 후에야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거로구나. 나는 아이를 많이 낳을 자신은 없으니 하나만이라도 잘 키워야겠구나. 그렇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을까…’

고통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했다. 육아에 관한 첫 번째 선택이었다.

‘모유를 먹일 것인가? 분유를 먹일 것인가?’

옆에서 나를 돌봐 주시던 시어머님께서, “고작 한 달간 젖 물리고 다시 직장에 나가야 하는데 왜 그 고생을 하나. 옆 병실의 산모처럼 약 먹어 버려

라. 그리고 네 몸이나 돌보는게 좋을 것 같다.” 하시며 만류하셨지만 이렇게 힘들게 낳은 자식을 위해 엄마로서 아니 엄마만이 줄 수 있는 최초이면서 최고의 선물은 모유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초유만이라도 먹여야지 하고 왕고집을 부렸다. 그러나 그 악몽 같은 젖몸살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채 연 이틀 동안 계속 되었다. 유축기를 사용해 보다가,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을 하고 꼭꼭 눌러 보다가, 시계 방향으로 돌려 비틀어 짜 보기도 했지만, 고작 한 두 방울이 비칠 뿐이었다. 내 고생에 힘이 될까 하여 동원된 식구들은 신랑, 어머님, 친정엄마, 고모님, 작은 형님이셨고 틈틈이 간호사가 와서 도와줬는데….

그 간호사가, “그만 두시는 게 좋겠어요. 전에도 이런 가슴을 가진 산모가 있었는데 그 산모도 고생 했지만 젖이 안나와서 결국 포기했어요.” 하고 돌아갔으니 식구들의 눈빛도 괜한 고생만 하는 게 아닌가 하고 나를 보는 듯했다.

분만 5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다.

엄마는, “아가가 빨아야 젖이 잘 돈단다. 아가에게 물려 보는 게 좋겠다.” 하시며 병원 측에서 정해 놓은 수유 시간을 알아보고 그 시간에 맞추어 내려가게 하셨다. 아직 성치도 않은 몸이었지만 그래도 젖을 물려 보겠다며 수유실에 가보니 몇몇 산모들이 모여 있었다. 아가를 품에 안아 본적이 없는 완전 초보인 내게 간호사는 베개를 무릎위에 놓고 아가를 안아 젖을 물리는 방법을 소상히 가르쳐 줬지만 쉽지 않았다.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봤지만 아가는 젖을 빨려고 하질 않았다.

“처음이어서 그럴꺼야. 하림아 그래도 다시 한번만 더 해보자”하고 달래가며 한참을 끙끙거렸다.

그러나 아가는 입만 대보고 그냥 앵 하고 울어버린다.

‘분유병 꼭지에 익숙해진 탓일까.’

9월초, 아직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여름의 끝자락에서 아이를 안은 내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그 땀방울이 주르르 흘러 아가의 얼굴에 똑똑 떨어졌다.

‘하림아 먹으렴. 네가 힘껏 빨아야 젖줄이 터진다는 구나. 제발 하림아...’ 속으로 울면서 물려 봤지만 결국 첫날 수유 시간은 울음 바다로 끝났다. 나는 애가 타서 울고, 아가는 배가 고파서 울고...

지켜보고 있던 간호사가 분유를 좀 먹여 보라고 갖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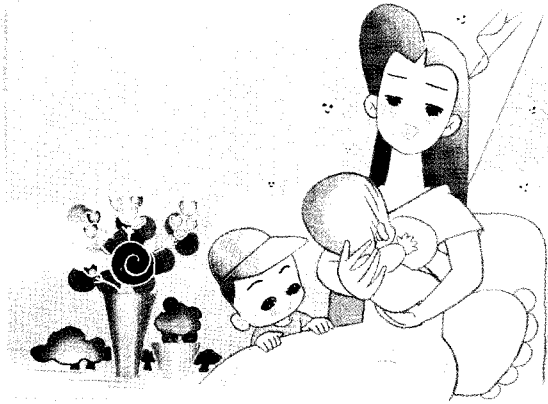
옆에서 편안하게 젖을 주고 있는 다른 산모들이 그렇게 부러워 보일 수가 없었다. 그 중 가장 능숙해 보이는 산모에게 내가 찾아갈테니 젖이 잘 나오는 방법을 좀 알려 달라고 부탁을 해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운 없이 돌아 나오려는 내게 야까 그 간호사가 보기에 안쓰러웠던지 다가와서 하는 말이 “기운 내시구요. 가서 찜질과 마사지를 조금 더 해보세요. 초유가 나오면 조금이라도 분유병에 담아 오세요.” 그 말에 다시 기운을 차렸다.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했다. 오후가 되자 한 방울씩 떨어지던 초유가 느닷없이 피-응 하고 분수처럼 한줄기가 솟는 게 아닌가? 오렌지 빛 초유였다. 이제 무언가가 되어 가

는 게 느껴졌다. 함께 계시던 친정 엄마가 “장하다”하시며 땀으로 범벅이 된 내 얼굴을 만져주셨다.

그러나 병원에서 퇴원 할 때까지도 하림이와 나는 모유수유 시간이 맞지 않았다.

정해진 수유 시간에만 젖을 물린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퇴원할 땐 병원장에게 수유 시간의 불합리성을 얘기하고 시정 해줄 것을 요구했다. 글썽 고쳐졌을지는 모르겠다.



퇴원하고서의 모유 먹이기는 한결 자연스러워지는 게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잠을 자다가 수시로 깨는 아가에게 젖을 물리느라 연일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서인지 신경이 예민해졌고, 산후 우울증도 겹친 탓에 밥 먹을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는다.

그래도 젖이 잘 돌려면 국물은 마셔야 한다고 하셔서 꾸역꾸역 미역국 한사발씩을 마시기는 했다.(야! 이 모성애란 무엇이란 말인가.)일주일 정도 지나자 정말이지 주체 할 수 없을 정도의 젖이 그냥 줄줄 흐르는 게 아닌가. 이제 분수 같은 젖줄은 두 개가 되고 세 개까지 되어갔다. 그토록 고생해서 얻은 모유라서 그런지 흘러내린다고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열심히 받아 모았다. 툭툭한 우유 빛이다.

받아 모은 모유는 냉동실에 넣었다가 나중에 먹이곤 했다.

아가도 엄마도 이제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한 달간의 분만 휴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시 고민이 되었다.

본 난은 우리 협회에서 실시한 엄마젖이 최고! 대국민 홍보작품 수기 부분 새빛상에 입상한 서란희씨의 작품입니다.